

# 정조시대 규장각의 교육적 의의

최 두 진<sup>†</sup>

(부산대학교)

## The Study on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Kyujanggak(奎章閣)

Doo-Jin CHOI<sup>†</sup>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ducational functions of Kyujanggak(奎章閣) during King Jeongjo(正祖) and reflect its significance. Kyujanggak was established by King Jeongjo in 1776. The main function of Kyujanggak was keeping and managing Eopil(御筆) and it continued to perform what Jiphyeonjeon(集賢殿) had done. Among the functions of Kyujanggak, there found several critical ones that today's educational institution needs to do: 1) library function including collecting, keeping, and utilizing books 2) education of elites like Chogyemoonsin(抄啓文臣) 3) writing and publishing to encourage writing customs(文風振作) 4) the classic-mat lectures(經筵) to facilitate King's learning.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education is the dynamic force and bulwark. Also, library is the treasure house and center of traditional culture. Especially, Kyujanggak has been estimated to perform the functions of both education and library successfu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actice of Kyujanggak reminds us that the educational mind and leadership of the top leader of nation is the primary and decisive factor in building a strong culture-nation.

*Key words* : Jeongjo(正祖), Kyujanggak(奎章閣), Chogyemoonsin(抄啓文臣), The staff vassals(閣臣), The classic-mat lectures(經筵)

### I. 서론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정의되는 21세기는 특히 '문화의 세기'와 더불어 나아가야 한다. 일찍이 겨레의 선각자 백범 김구도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불행한 것은 인

의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백범정신선양회, 1992: 260-261)라고 제언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가장 모범적인 문화강국이 되기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식기반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2-6112, worldvertex@nate.com

사회의 튼튼한 구축과 문화강국의 건설은 우리가 스스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지상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미래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대한 창조적인 꿈을 갖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의 몫인 것이다. 인류의 지성사는 인간이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여 빈틈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행동함으로써 인류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는 현재를 낳게 한 모태이고 현재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발판이다. 따라서 소위 백년대계의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문화 강국의 건설과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을 위해서, 원대하고 투철한 큰 꿈과 역사의식을 갖고 항상 옛것을 거울삼아 새것을 만들어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꿈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파멸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법고가 없으면 현재를 알 수 없고 창신이 없으면 미래를 알 수 없다.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은 법고를 소홀히 한 채 창신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나 법고 없는 창신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

한편 만약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지구가 제공해줄 수 없기를 희망한다면, 인간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법, 나아가 지구 전체의 차원에서 우리가 상호 교류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런 교류와 통합을 호학군주(好學君主)인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18세기에 시도하였다. 그는 문화의 창달과 명실상부한 왕도정치를 위해 군사(君師)로서 몸소 규장각을 설립하여 학문공동체와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정조가 세운 규장각은 당시의 성균관에서부터 향교에 이르기까지 그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였고, 노론의 대세 아래에서 교육적 논의도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의 근본과 기본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여 그 모범을 보인 기관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정조시대 규장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연구이다.

다들 알다시피 송유주의(崇儒主義)의 조선시대는 거의 모든 것이 학문과 관련지어져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성리학이라는 학문과 분리될 수 없었다. 그만큼 조선조에서는 학문을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및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과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더불어 이에 버금가는 호학군주들도 등장하였다. 바로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世宗: 재위 1418-1450)과 제22대 왕인 정조가 조선을 대표하는 호학군주들이다. 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학문을 즐기는 군주들이었다. 또한 학술기관인 집현전과 규장각을 각각 설치하여 뛰어난 학자들을 양성하고 등용하였고, 정치 자문과 왕실 교육 및 서적 편찬 등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세종과 정조는 나라의 최고경영자이면서 교육정책의 최고지도자이었기에 '우리역사상 가장 본받고 싶은 최고의 군사(君師)'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정조는 그 스스로를 임금이면서 스승이라고 여겨 '군사'로 자부하면서 신하들을 독려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정옥자, 2012: 180).

다만 여기서는 보다 실제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졌던 규장각(奎章閣)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정조의 삶과 규장각의 설립 배경을 살펴보고 한다. 정조는 호학군주인데, 이에 대한 그의 학문적 관심을 살펴보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왕위 등극과 함께 규장각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둘째, 규장각의 운영과 실제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규장각의 조직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아울러 그 주요기능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는지 그 실제적 특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끝으로 규장각의 교육적 의의 대해서 간단

히 기술해보려고 한다.

규장각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규장각지(奎章閣志)』 분석을 통하여 규장각의 기본인 그 설립목적과 직제,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논문이 있다(안광래, 1986; 이이화, 1979). 그리고 규장각의 여러 기능 중 도서출판 과정 그리고 그 장서(藏書)에 대한 연구가 있다(강순애, 1989; 남권희, 1983; 이행숙, 1982). 한편 규장각의 기본 기능 외에 정조의 정치기구로서 살펴본 연구가 있다(설석규, 1984). 또한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이는 초계문신에 한정해서 그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김동배, 2009; 최두진, 2009). 이와 더불어 문화사적으로 재정립하여 당시 정조시대를 문화국가의 시기로 밝혀낸 연구도 있다(정옥자, 2006).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규장각의 여러 기능을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기존에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된 초계문신 외에도 도서관, 경연 등과 관련하여 규장각의 전체적인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 II. 정조와 규장각 설립 배경

### 1. 군사(君師) 정조

정조는 1752년(영조 28)에 영조(英祖)의 손자로서 사도세자(思悼世子)와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산(禡)’,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였던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1759년(영조 35) 세손에 책봉되었고, 1762년(영조 38) 5월에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광경을 목도하였다. 노론의 견제를 무릅쓰고 영조는 일찍 죽은 맏아들 효장(孝章)세자의 뒤를 이어 세손인 정조로 하여금 종통을 계승하게 하였고, 영조가 서거하자 정조는 1776년 3월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는 내부의 문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던 시기라서 정조가 집권하고

있었던 조선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였다. 하지만 노론이라는 거대한 당(黨)이 그러한 안정적인 외부 정세 속에서 정계를 주름잡고 있었다. 노론은 군약신강(君弱臣強)의 나라를 만들어 군주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들이 군주처럼 군림(君臨)하여 조선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 힘은 세자(世子)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하였다. 예컨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소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다가 노론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정조도 노론에 의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해주었고, 정치와 같은 외부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 단초가 되었고, 나아가 정조가 학문에 집중하게 된 발단이 되었다.

정조의 세손시절에는 그가 학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좋은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학문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던 것이다. 『정조실록(正祖實錄)』에 따르면,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였고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효경(孝經)』과 『소학(小學)』을 바탕으로 『논어(論語)』 등의 여러 경전을 독파하고 그 뜻을 헤아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왕이 어린 시절 남다른 재질이 있어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났고 그릇과 도량이 특출하였으므로 장순왕[영조(英祖)]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늘 좌우에다 두고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한번 본 것은 잊지 않아 『효경(孝經)』·『소학(小學)』·『논어(論語)』·『맹자(孟子)』·『시경(詩經)』 등을 차례대로 독파하고 문리(文理)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과업을 권고하지 않아도 게으른 빛 없이 부지런하였다.<sup>1)</sup>

1) 『정조실록(正祖實錄)』, 부록, 시장(諡狀), “王 幼有異質 聰睿絕羣 器度岐嶷 莊順王奇愛之 常置左右 教以文字 聞一知十 過目不忘 孝經小學語孟毛詩諸書 次第通貫 文理日就不待勸課 孜孜不懈”.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소질이 있었던 그였다. 이것은 자신을 압박하는 외부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정조를 더욱 학문에 매진하게 만든 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학문은 정조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다. 그의 학문은 단순히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크게 느끼면서 여러 신하들과 토론을 하였고, 나아가 학문적 성과를 서적으로 편찬하였던 것이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던 1772년(21세)부터 세상을 떠난 1800년(49세)까지 29년 동안 편찬된 서적들에 대한 목록이,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 편찬된 『홍재전서(弘齋全書)』(1801) 안에 들어 있는 「군서표기(群書標記)」에 모두 정리되어 있다. 「군서표기」에는 서적들을 크게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어정서’는 정조가 직접 편찬 작업을 주도한 책이고 ‘명찬서’는 정조가 명령해서 제3자들이 편찬한 책들을 말한다. 소개된 서적은 모두 151종 3,960권으로 이 가운데 어정서는 87종 2,459권이다(정옥자, 2007: 386). 이는 정조가 직접 편찬한 어정서가 더 많다는 뜻이고, 학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정조가 명실 공히 학자군주였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군주이면서 정조처럼 학문을 즐겼던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신종(神宗, 1408-1085) 조욱(趙頊)과 조선에서는 세종(世宗, 1397-1450)이 학문을 즐기는 군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즐겨한 학문을 바탕으로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편찬사업을 주도한 군주는 정조가 유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조는 군주로서 재임하는 동안 고위 문신, 규장각 초계문신, 성균관 유생, 지방 유생들에게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직접 시험하였으며,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한 운음(綸音: 군주가 관인과 인민을 타이르는 내용을 담은 문서)을 반포하였다.

정조가 이처럼 당대의 학계를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삼대 이후로는 유일하게 자신이 군사(君師)를 실현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김문식, 2007: 53). 이는 정조가 학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학문적으로 대적을 한다면 당대의 어느 문신들보다도 뛰어났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2. 규장각의 설립 배경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조가 등극한 이후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그가 즉위년부터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규장각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정조는 그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 “규장각은 열성조의 어제를 봉안하고 아울러 천하의 도서를 비축하는 곳인데, 그 규모와 제작의 뜻은 문헌을 숭상하는 정치를 장식하려 함이다.”<sup>2)</sup>라고 규정하였다. 규장각은 기본적으로 군주가 지은 글들과 중국과 조선의 훌륭한 도서를 비축하여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펼치려 하였던 것이다.

정조가 책을 기초로 삼으려 하였던 이유는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일삼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서책은 도(道)를 신고, 전각은 서책을 갈무리하는 곳이다. 열성조의 전모(典謨)와 공렬(功烈)을 펼치고 사방의 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이 제왕으로서 맨 먼저 해야 할 책무이며 역대로 중요시하던 바이다.”<sup>3)</sup>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렇게 도서를 모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초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문치와 교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고 제

2) 『홍재전서(弘齋全書)』, 제48권, 책문(策問)1, 奎章閣, “王若曰, 奎章閣, 所以奉安列聖之御製, 而并貯天下之圖書, 其規模制置, 欲飾右文之治也.”

3) 『홍재전서』, 제48권, 책문1, 규장각, “大抵書以載道, 閣以藏書, 鋪張列朝之謨烈, 興起四方之文化, 此帝王之先務, 而歷代之所重也.”

학과 직제학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고 정조는 말하고 있다. 위에서는 행하고 아래에서는 그것을 본받아 기존의 나쁜 풍속들을 선하게 변화시켜서 그 결과 학교에 글을 외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고 훌륭한 선비들을 키워 그들을 관직에 등용시켜서 문화를 흥기시키려는 것이 그의 규장각 설립 배경이었다.

우리 동방은 궁벽한 해우(海隅)에 치우쳐 있어서 중국의 문헌이 전래되지 않고 편방의 습속도 고루하여, 신라와 고려 이래로 적절하게 정치와 교화의 융성함을 보지 못하였다. 마침내 본조에 이르러 큰 아름다움을 법 삼고 천명하여, 전장과 문물이 빛나게 기록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악의 흥기는 반드시 백 년을 기다려야 하고 제작의 구비도 역시 시기가 있는 법이라, 전각을 건립하여 서책을 갈무리하는 것은 대체로 지금까지 겨를이 없었다. 생각건대 과덕한 나는 큰 계통을 새로 계승하여, 전모와 공렬을 현양하고 문치와 교화를 진흥하는 것을 우선의 책무로 삼았다. 그리하여 궁중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또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의 관직을 설치하기를 일체 송나라의 고사와 같게 하였으니, 우리 동방의 예악의 근본이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에 마땅히 위에서 행하고 아래에서 본받아 풍속을 크게 변혁함으로써 현송(絃誦)의 소리가 학교에 넘쳐흐르게 하고 명예로운 준사들이 등용의 반열에 들어 서 있게 해야 할 것이다.<sup>4)</sup>

또한 정조는 그 스스로 학문을 즐기는 성향이 강했으므로, 정사를 보다가도 시간이 나면 여러 신하들과 경사(經史)에 대해 토론하고 민생의 질

고(疾苦)와 정치의 득실(得失), 앞선 군주들의 치란(治亂)에 대해서 찾아보고 익히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군주로서 정사를 보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겼고, 이러한 뜻에 연유해서 내각(內閣: 규장각의 별칭)을 새롭게 설립하였던 것이다.

내가 본디 문묵(文墨)에 종사하는 것을 즐기는 성벽(性癖)이 있어, 매양 기무(機務) 사이에 여가가 나면 애오라지 각중(閣中)의 여러 신하들과 경사(經史)에 대해 토론하고 생민의 질고(疾苦), 정치의 득실(得失), 전대(前代)의 치란에 관해 뜻에 따라 찾아서 섭렵하고 있으니, 실상 보필(輔弼)로 여기는 뜻이 있는 것이다. 내가 내각을 건립한 본의는 오로지 여기에 연유한 것이니, 경등은 이런 뜻을 알아주기 바란다.<sup>5)</sup>

그러므로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한 배경에는 그 스스로 학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풍을 진작시키는 것이 문화를 흥기시키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여 그 기초로서 훌륭한 도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또한 군주로서 정사를 바로 보기 위해 정조 혼자만의 시각보다는 여러 신하들과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사를 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 III. 규장각의 운영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바로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奎章閣)'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 6개월 뒤 9월 25일에 준공한 다음, 이를 관리하는 직제(職制)를 마련하였다. 규장각은 '규성(奎星)이 빛나는 집'이란 뜻인데, '규성'은 '별 가운데 문운(文運)을 관장하는 별'로서, 흔히 임금의 글을 규

4) 『홍재전서』, 제48권, 책문1, 규장각, “惟我東方僻在海隅, 中國之文獻不傳, 偏邦之習俗且陋, 羅麗以來, 寂未聞治教之盛, 及至本朝, 式闢洪休, 典章文物, 煥然有述, 然禮樂之興, 必待百年, 制作之具, 亦有其時, 建閣藏書, 蓋至于今未遑矣, 惟我寡人新承丕緒, 思欲以顯謨烈振文化爲先務, 置奎章閣於禁中, 又置提學直提學直閣待教等官, 一如宋朝故事, 我東方禮樂之本, 其在斯乎, 是宜上行下效, 風俗丕變, 絃誦之聲, 洋洋於庠序之間, 譽髦之士, 濟濟於庸庸之列.”

5) 『정조실록』, 제13권, 6년 5월 29일(乙丑), “予素癖於文墨間從事, 每於機務之暇, 聊與閣中諸臣, 凡於經史討論, 生民疾苦, 治政得失, 前代理亂, 隨意搜獵, 實有鄰邦之意焉, 惟予建閣之本意, 職由是也, 卿等庶或知之矣.”

성에 빚대어 “규한(奎翰)”으로 불렸다. 그러므로 ‘규장각’은 ‘임금의 글이 빛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것이다.

규장각은 1776년부터 1910년까지 135년 동안 존속하였다. 여기서는 정조시대의 규장각 운영 방식에 대해서 기술해 보려고 한다.

## 1. 규장각의 시설

규장각을 설치한 목적은 어제와 어필을 봉안·관리할 뿐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고 문풍(文風)을 진작시킨다는 교육·문화 기능이 큰 비중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정조는 규장각의 각신들에게 문물을 재정비하는 편찬사업을 맡겼다.

규장각의 건물은 창덕궁에 있는 ‘내규장각’과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각과 외각으로 나누었는데, 정조 원년에 설치된 규장각을 “내각”이라 하였고, 정조6년(1782)에 경적(經籍)의 인쇄·반포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서인 교서관(校書館)을 편입시켜 “외각”이라 하였다.

규장각은 처음 창덕궁의 금원(禁苑)에 설치되었고, 정조의 어진(御眞)·어제(御製)·어필(御筆)·보책(寶冊)·인장(印章) 등을 받들어 보관하였다.<sup>6)</sup> 서남쪽에는 봉모당(奉謨堂)이 있는데, 이곳에는 열성의 어제·어필·어화(御書)·고명(顧命)·유고(遺誥)·밀교(密敎) 및 선보(璿譜)·세보(世譜)·보감(寶鑑)·장지(狀誌) 등을 보관하였다.<sup>7)</sup> 정남쪽에는 열고관(闕古觀)이 있다. 이곳은 중국에서 출판된 모든 책들을 보관한다. 서북쪽에는 서고(書庫)가 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들을 보관하였다.<sup>8)</sup>

규장외각은 강화도의 행궁(行宮) 동쪽 장녕전

(長寧殿) 서쪽에 있다. 효종(孝宗: 재위 1649~1659)대에 강화도의 행궁을 수선하여 서고를 설치하고 효종의 교명(敎命)·책보(冊寶) 및 열조의 어제·어필·고금서적과 도화 등을 모두 별고에 소장하게 하였다.<sup>9)</sup>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정조가 1781년에 교지로 다음과 같이 명하여 정비하였다.

강도에 봉안하여 온 전장문자(典章文字)는 사각(史閣)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외규장각이라고 할 만하다. 이후 모든 봉안에 있어 제학·직제학 중 1명, 직각·대교 중 1명을 진거(進去)하여 업무를 맡게 하고, 포쇄(曝曬)는 직각·대교 가운데 한 사람이 1년씩 교대로 내려가는 종부시(宗簿寺)와 사국(史局)의 예와 같이 하도록 하라.<sup>10)</sup>

이후 교서관을 편입시켜 경적을 간행하여 반사(頒賜)하고, 향축(香祝)과 인전(印篆)의 일을 맡게 하였다.<sup>11)</sup>

## 2. 규장각의 직제

규장각은 단순히 어제·어필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승정원과 관각(館閣: 홍문원과 예문관 등)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였다. 나아가 옛 집현전과 독서당의 기능을 합쳐 학문을 연구하고 서적을 편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었으므로 높고 낮은 지위의 관리가 많이 필요하였다.

규장각의 직제는 정조 8년(1784)에 편찬된 『규장각지(奎章閣志)』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6) 『규장각지(奎章閣志)』, 建置, 內閣, “奎章閣, 在昌德宮禁苑之北, (생략), 所以奉 當宁御眞·御製·御筆·寶冊·印章.”

7) 『규장각지』, 建置, 內閣, “西南曰, 奉謨堂, 所以奉列朝御製·御筆·御書·顧命·遺誥·密敎及璿寶·世譜·寶鑑·狀誌也.”

8) 『규장각지』, 建置, 內閣, “正南曰, 闕古觀, (생략), 所以藏華本圖書也. (생략), 西北曰, 書庫, 所以藏東本圖籍也.”

9) 『규장각지』, 建置, 內閣, 附 江都外閣, “奎章外閣, 在江都行宮之東, 長寧殿之西, 國家, 自孝宗朝, 繕修江都, 定爲保障, 凡當宁敎命·冊寶·列朝御製·御筆, 及古今書籍圖畫, 皆藏于別庫.”

10) 『규장각지』, 建置, 內閣, 附 江都外閣, “當宁辛丑, 敎曰, 江都, 所奉典章文字之多, 非史閣比, 雖謂之外奎章閣可也, 後凡有奉安提學·直提學中一人, 直閣·待敎中一人, 進去, 而曝曬則直閣·待敎中一人, 間一年下去, 并依宗簿·史局例.”

11) 『규장각지』, 建置, 外閣, “校書館, 掌印頒經籍, 香祝·印篆之任.”

이에 따르면, 규장각 관리는 크게 3등급으로 구분된다. 첫째, 각신(閣臣), 둘째, 잡직(雜職), 셋째, 이속(吏屬)이 그것이다. 각신은 모두 6명이다. 제학(提學) 2명, 직제학(直提學) 2명, 직각(直閣) 1명, 대교(待敎) 1명이다. 이는 중국 한림원의 6학사 제도를 따른 것이다. 각신은 주로 초계문신들을 담당하였다.

대교 아래에는 잡직으로 2명의 각감(閣監), 2명의 사권(司卷), 4명의 검서관(檢書官), 2명의 영첨(領籤), 1명의 검율(檢律), 8명의 사자관(寫字官), 6명의 감서(監書), 10명의 화원(畫員)이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잡직은 모두 35명이 된다. 잡직이란 문과 합격자들이 들어가는 동반정직(東班正職)과 구별되는 별도의 관직체계로서 서열이나 중인들이 들어가는 자리이며, 6품에서 9품까지의 품계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대교의 역할은 규장각 일기인 『내각일력(內閣日曆)』을 작성하는 것이었고, 직각은 대교가 작성한 『내각일력』을 수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직제학은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정3품)를 겸임하였으며 시험 감독을 담당하였고, 제학은 규장각 전체를 관리하였다.

이외에 잡직에 속하는 검서관(檢書官)들이 있다. 이들은 서열 가운데서 문예가 있는 자들로 차출되어 5품의 관직이 주어졌으며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신분은 양인이 아니지만 학문에 탁월한 자들이었다. 초계문신제가 시행되면서 임금인 정조가 직접 시험을 할 때, 고생관(告姓官: 첨지를 주는 사람), 급책관(給冊官: 책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강지관(講紙官: 종이를 전달하는 사람)의 직책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검서관은 이밖에도 임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시험관과 수험생이 서로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즉석에서 기록하여 시험관과 수험생에게 보냈다. 그런 뒤 시험관과 수험생이 이를 다듬어 규장각에 보내면 규장각은 시험관과 검서관이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다음 임금에게 보고하게 했다(한영우, 2008: 45-46).

이속은 잡직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10명의 서리(書吏), 2명의 서사리(書寫吏), 6명의 겸리(兼吏), 2명의 정서조보리(正書朝報吏), 4명의 각동(閣童), 2명의 직(直), 2명의 대청직(大廳直), 15명의 사령(使令), 4명의 인배(引陪), 4명의 간배(間陪), 2명의 조라치(照羅赤), 2명의 방직(房直), 2명의 수공(水工), 7명의 군사(軍士), 6명의 구종(丘從)이 있다. 그러므로 이속은 모두 70명이다. 이상 각신, 잡직, 이속을 모두 합치면 모두 110여 명에 이른다.

### 3. 규장각의 기능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건물과 더불어 이를 관리하는 직제까지 마련하였다. 규장각은 우선 어제와 어필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기초로 삼았다. 그리고 여기에 세종 때의 집현전의 기능을 보태고, 더 나아가 문신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준 독서당(讀書堂)(서범중, 2003), 곧 호당(湖堂)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한영우, 2008: 29).

정조는 종합적인 문翰(文翰)의 기능을 가진 규장각을 통해 문신들을 재교육하고, 각신들과 자주 만나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고, 휴가를 주며, 책을 편찬하게 하는 등 자신의 분신처럼 가까이 지냈다. 그리고 각신들에게 언론을 맡기고, 비서 기능을 맡기고, 과거시험의 출제를 맡기는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했다.

이렇듯 정조의 뜻을 받들어 규장각에서는 서적 수집과 수입, 출판, 보급에 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규장각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집현전과 마찬가지로 경연의 기능이었다. 전대 왕들이 피동적으로 참여한 데 비하여 정조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신하들을 선도하며 학문에 힘썼다. 조선의 문치주의는 신하들은 물론 왕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학자군주를 요구하였다. 정조가 방대한 저서인 『홍재전서』라는 문집을 남긴 사실이 이를 증명

하고 있다.

규장각에서 수행한 주요 인재양성 정책은 초계 문신 교육제도이다. 초계문신제는 37세 이하의 4품에서 9품까지의 당하관 문신을 선발하여 성인과 같은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교육내용으로 『대학(大學)』 · 『논어(論語)』 · 『맹자(孟子)』 · 『중용(中庸)』 · 『시전(詩傳)』 · 『서전(書傳)』 · 『주역(周易)』 을 공부하였고, 읽기 시험인 시강과 글짓기 시험인 시제로 시험 보았다. 시강은 위와 같은 순서대로 반복하여 글을 읽게 하였는데 글을 정확히 읽는 것보다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며 시험은 매달 과장으로 한 번 시행하였다. 시제는 친시와 과시를 매달 한 차례씩 거행하였고 고증을 얼마나 정확히 하였는지를 중요시 하였다. 정조는 더불어 친림(親臨)을 실시하였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방법으로 상벌(賞罰)제를 실시하였는데, 통(通) · 약(略) · 조(粗) · 불(不)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시강은 ‘불’을 받은 자에게, 그리고 시제는 ‘말(末)’을 받은 자에게 각각 벌을 내렸다. 3차례 연속 1등을 한 자에게는 관직에 따라 승진을 시켜 주었고 강제성을 두어 결시한 문신들에게는 추궁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관직을 강등시켰다. 이렇듯 초계문신들을 재교육 시키는 모든 일을 전담하여 시행하였고, 이 모든 사항들을 정조에게 보고하여 왕과 신하 모두가 초계문신들을 교육하는데 힘을 썼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초계문신을 교육한 배경에는 첫째, 문풍이 부진한 이유가 인재배양의 근본을 잃었기 때문이므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 연소한 문관들이 과거시험에만 골몰하고 과거만 끝나면 글자 한자도 들여다보지 않는 습속을 깨뜨려야 하겠다는 점이다. 셋째, 문신들에게 경전 공부 하도록 하고 다달이 과제를 내주는 규칙(規式)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

고 있는 점 등이다(정옥자, 2007: 393-394). 학문이 과거의 폐단으로 수단이 되어버렸고, 유생이나 관리들은 관직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했고 초계문신 교육이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출판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정조 치세의 전반이라고 할 수 있는 1780년대까지는 주로 관제(官制), 형정(刑政), 통제(通制), 병법서(兵法書), 외교서(外交書) 등 제도정비와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1790년대 이후 정조 말년까지는 사서(四書)와 삼경(三經) 강의(講義)나 주자서류(朱子書類) 등 경서류(經書類)와 문집류(文集類)들이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또한 편찬되는 서적들의 수도 1790년대 들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며, 정조 말년에 집중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정옥자, 2007: 403).

규장각은 경연과 초계문신들을 교육하고 출판하는 활동이 주요 기능이었다. 정조는 비록 군주였지만 군주이기 이전에 유학을 공부하였던 유학자였다. 공부하는 유학자의 과정이 필요한 까닭은 군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규장각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을 다지는 동시에, 신하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정조는 기록으로 남겼고,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내용들은 편집하여 출판까지 이루었던 것이다.<sup>13)</sup>

한편, 규장각은 노론의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초계문신 교육을 통해 당파를 이겨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정조는 노론에 의한 일당 주도의 정계로서는 조선의 앞날이 밝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또한 사도세자가 노론에 의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할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

12) 『정조실록』(제11권, 5년 2월 18일(辛酉), 초계문신 강제 절목)과 『규장각지』(敎習) 참고. 연구서로서는 정옥자(2001), 한영우(2008), 최두진(2009)의 연구 참고.

13) 『홍재전서』, 「군서표기」 참고.



이다. 이에 정조는 학문에 정진하였고, 주자성리학이 사상의 중심이었던 조선에서 당시의 누구와도 학문과 사상을 논하여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규장각은 정조의 학문적인 부분에서부터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조의 비서실 역할과 함께 학문과 교육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관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4. 규장각의 운영과 실재

전술한 규장각의 시설과 직제 그리고 기능을 바탕으로 규장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기술하려고 한다.

첫째, 규장각의 기본역할은 도서를 수집 보관하고 도서를 출판하는 일이었는데, 도서출판은 정조의 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위에서 본 규장각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도서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도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장서는 21만 권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본은 11만 4000여권에 이른다. 이처럼 당시 규장각은 국립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각 대학도서관에 장서수가 그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데, 더구나 정조의 명으로 훌륭한 도서들을 가려서 수집하였으므로 도서관으로서 대단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규장각은 도서를 출판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출판한 도서도 수집도서에도 포함된다.

또한 도서출판은 정조의 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조 5년(1781) 7월 10일(庚戌)의 실록 기사를 보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술하라고 명하였는데, 이후에 정조 6년(1782) 11월 24일(丁巳)에 『국조보감』이 완성될 때까지 규장각 신하들에게 계속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조 9년(1785) 8월 30일(丁丑) 실록 기사를 보면, 각신 등을 불러 놓고 『일성록(日省錄)』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렇게 역대 왕들의 기록 등을 비롯하여 많은 책들이 규장각에서 출판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군서표기」에는 서적들을 크게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고, 표기되어 있는 서적은 모두 151종 3,960 권이고, 이 가운데 정조가 편찬한 어정서 87종 2,459권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상당한 수의 책이 규장각에 의해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규장각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규장각의 업무 중에서 민생의 사안에 대해 그 해결책을 고심하는 것도 또한 주요한 일이었다. 정조 5년 8월 22일(壬辰)의 실록 기사를 보면, 전국에 태풍 피해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조는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휼하고자 그 방책을 각신들에게 구하고 각신들은 그 방책을 정조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조실록』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각신들에게 그 방책을 묻는 내용들이 다수 등장한다.

셋째, 초계문신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다. 초계문신 교육은 정조가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면서 모든 관리를 규장각에서 맡고 있다. 초계문신은 기본적으로 과장과 제술로 교육을 하고, 시험을 한다. 먼저 정조의 명에 의해 과장과 제술 날짜를 잡고,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전달한다. 다음은 『일성록(日省錄)』에서 정조가 초계문신의 과장과 제술에 대해 명하는 내용이다.

초계문신의 과장과 제술을 내일 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초계문신에 대한 2월 초차(初次: 첫 번째) 이후의 과시와 친시(親試), 정월 재차(再次: 두 번째) 이후의 과장을 아직 하지 않았다. 이 일은 비록 승자(陞資: 조선시대 때 정4품에서 종9품의 관직이 종3품 이상으로 승진함)한 문신이라 하더라도 가자(加資: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올리던 일)되기 전의 과장과 제술은 추후라도 응시해야 하니, 집에서 응시하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을 잘 알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

를, “지난 2월의 친시를 내일 하라. 1월의 재차에서 과강하지 않은 장(章)부터 내일 역시 해야 할 것인데, 많은 장을 일시에 다 강(講)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곧 강의할 사항을 써서 내릴 것이니 조목조목 대답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처음에는 방(榜)이 나오기를 기다려 더 뽑은 뒤에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더 뽑은 사람은 이달의 과강과 제술부터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조처한 것이다. 근래 오랫동안 문신들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겸하여 이를 통해 연접(延接 :영접)하고자 하니 이로써 분부하라.” 하였다.<sup>14)</sup>

이처럼 정조는 자신의 마음대로 초계문신의 시험을 치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그리고 추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실시를 하더라도 시험을 꼭 실시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넷째, 규장각의 업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정조와의 경연(經筵)이었다. 정조 5년 3월 신묘(辛卯)일에 정조는 이문원에 행차하여 내각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근사록(近思錄)』을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제학 김중수(金鍾秀)·유언호(兪彦鎬), 직제학 정민시(鄭民始)·심영조(沈念祖), 직각 서정수(徐鼎修), 대교 정동준(鄭東浚), 원임 제학 이휘지(李徽之)·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서명옹(徐命膺), 직제학 서호수(徐浩修), 직각 정지검(鄭志儉)·김희(金愷)·김우진(金字鎭), 대교 서용보(徐龍輔)에게 “『근사록』은 곧 학문의 요지(要旨)인데, 태극도설(太極圖說)이 책을 펴면 가장 중요한 뜻이

되니 먼저 이 장을 읽으라.”<sup>15)</sup>고 하였다. 그리고 “대개 강설(講說)은 곧 말로 인하여 의문을 일으키고 의문으로 인하여 의문을 풀게 하여 결국은 사람의 신심(善心)을 감격하여 발현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다.”<sup>16)</sup>라고 역설함으로써 강(講)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규장각의 신하들과 강을 하는데 『근사록』에 나오는 성인(聖人)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개발(開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며, 이 날은 신하들과 하루 종일 끝까지 토론하고 밤새워 아침까지 계속 할 것이므로 숨김없이 다 말하며, 정조 본인도 토론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여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성인(聖人)의 말을 외면서 성인의 도(道)를 강설하여 조금이나마 개발(開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다면, 오로지 강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오늘 마땅히 경들과 함께 하루 종일 끝까지 담론하고 밤을 지새워 아침까지 계속 하려하니, 경들은 다 말하여 숨김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나도 마땅히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겠다.<sup>17)</sup>

그리고 이렇게 강을 하면서 “날이 저물어가니, 강을 거두도록 하라.”<sup>18)</sup>하였다. 이렇듯 정조는 규장각의 신하들과 학문적 토론하기를 즐겼고, 밤이 늦도록 열의를 다하였다.

규장각은 정조에게 최측근 기관이었고,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나갔다. 특히 정조의 학문을 위해 도서를 모으고, 도서를 편찬하면서, 나아가 정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보좌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14) 『일성록(日省錄)』, 정조 38집, 7년 4월 17일(丁丑), “命抄啓文臣講製, 明日爲之. 教曰, 抄啓文臣, 二月初次以後課試親試, 正月再次以後課講, 尙未爲之, 此則雖陞資文臣, 加資前講製, 當追赴, 在家應試, 以此知悉. 又教曰, 去二月朔親試, 明日爲之, 自正月朔再次未講之章, 明日亦當爲之, 許多章有難一時盡講, 此則從當書下講義, 使之條對事分付, 初則擬待榜出加抄後爲之, 更思加抄之人, 當自今朔講製應試故耳, 近來久未見諸文臣, 兼欲目此延接, 以此分付.”

15) 『정조실록』, 제11권, 5년 3월 18일(辛卯), “上曰, 近思錄, 卽學問要旨, 而太極圖說, 爲開卷第一義, 先讀此章.”

16) 『정조실록』, 제11권, 5년 3월 18일(辛卯), “蓋講說, 卽因言而起疑, 因疑而釋疑, 終至於感發人善心者也.”

17) 『정조실록』, 제11권, 5년 3월 18일(辛卯), “今欲誦聖言而設聖道, 以至於一分開發, 則惟講說是已, 今日當與卿等, 盡日劇談, 夜以繼晷, 卿等盡言無諱, 予當虛襟而受之也.”

18) 『정조실록』, 제11권, 5년 3월 18일(辛卯), “教曰, 日已迫曠, 撤講可也.”

더해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계문신을 비롯하여 유생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조와 학문적 토론을 나누는 경연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신분을 떠나 학문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을 인정하였다. 학문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움의 자세를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규장각에서 이행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만큼 규장각 각신들은 다른 신하들보다도 정조를 알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하루에 세 번씩 정조를 볼 수가 있었다. 그만큼 정조는 규장각 신하들을 믿고 의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정조시대의 규장각도 완전할 수는 없었다. 정조 16년 2월 경술일에 전(前) 집의(執義) 조석목(趙錫穆)이 당시 규장각 신하들의 행태에 대해 상소를 올린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영재이기는 하나, 정조가 하는 일에 간쟁은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좋은 말만 하고 있고, 또한 심도 있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경치만 노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의 규장각은 한(漢)나라의 백호관(白虎觀), 당(唐)나라의 영주각(瀛洲閣), 송(宋)나라의 이영전(邇英殿), 우리나라의 집현전(集賢殿)과 같습니다. 그곳에 선발된 인물로 말하면 일대의 영재(英才)들이고 그 영광으로 말하면 하루에도 임금을 세 번씩 접견하는 충애를 누리는 것입니다. 좌우에 가깝게 두고 달마다 과제를 주고 시험하여 전하께서 그들의 재능과 품격의 우열(優劣)을 매기고 글 잘하는 신하는 그들의 글재주를 서로 높이니, 이것도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임금을 먼려하고 경계하며 불의에 대하여 뜻을 거스르며 간쟁하는 신하의 법도를 보인 자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평범한 과제(課題)나 한만하게 음풍영월(吟風咏月)하는 것은 모두 여사(餘事)로 치고 오로지 경전과 사서(史書)를 강론하는 것을 주로 하여 삼대(三代) 제

왕들의 정치와 역대 치란(治亂)의 원인을 연구한다면 훌륭한 인재를 교육시키는 효과가 반드시 성대하여 볼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sup>19)</sup>

위와 같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장각의 역할과 그 순기능이 대단히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규장각의 실제적인 역할은 교육적 측면에서 충실히 이행되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이제까지 군사(君師)로서 몸소 규장각을 설치 운영하였던 정조를 중심으로 첫째, 규장각의 설립배경, 둘째, 규장각의 시설과 조직, 셋째, 규장각의 주요 기능, 넷째, 규장각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였다. 먼저 전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다음 규장각의 교육적 의의를 기술함으로서 이 논문의 맺음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관심이 많았다. 학문 그 자체에 즐거움을 크게 느꼈던 그는 규장각을 몸소 설립하여 신하들과 토론하고 학문적 성과를 서적으로 편찬하게 하였다. 정조의 '어정서'가 2천여 권이나 된다는 것은 그의 호학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군주로서 재임(1776-1800)하였던 25년 동안 고위 문신, 규장각 초계문신, 성균관 유생 및 지방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을 직접 시험한 것도 그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재임하면서 나아가 백성들을 교화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것이 정조가 학문에 대한

19) 『정조실록』, 제34권, 16년 2월 11일(庚戌), “奎章閣, 若漢之白虎觀, 唐之瀛洲, 宋之邇英殿, 我朝集賢殿, 其選則一代之英才, 其榮則三接之寵眷, 傍置左右, 月課月試. 殿下優劣其才品, 詞臣相尚其藻藝, 此非不盛矣, 而但勉戒吁咈之謨, 鮮有聞焉, 臣以爲尋常課製, 閒漫吟弄, 並付之餘事, 專以講論經史爲主, 以究三古帝王之治, 歷代治亂之所由, 則菁莪樂育之效, 必有蔚然可觀者.”

관심을 가지고 학문을 즐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힘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힘을 전달하기 위해 규장각과 같은 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한 배경도 문화를 진흥시켜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그 기초 작업으로 규장각에 훌륭한 도서를 모으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조선과 중국의 훌륭한 도서들을 비축하여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를 크게 활용하였다. 동시에 정조는 혼자만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기 보다는 규장각을 활용하여 각신들과 연구하고 토론한 것을 정사에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시각으로 왕도(王道) 정치를 펼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조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있어서도 규장각은 중요한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규장각의 구체적인 주요기능을 다시 언급하면, ① 인재양성과 문풍진작, ② 경연, ③ 학문연구, ④ 서적편찬과 수집보급, ⑤ 초계문신 교육, ⑥ 어제와 어필의 봉안과 관리로 세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몸소 학문을 좋아하는 군사인 정조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운영됨으로써 결국 '규장각하면 정조', '정조하면 규장각'을 연상할 만큼 규장각은 꽃을 피워 큰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규장각이 어떤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최고 경영자인 정조가 몸소 규장각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문화강국 건설의 시범을 보였다라는 점이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국가 최고 경영자와 모든 CEO가 범고창신의 정신으로 문화창달과 문화강국 건설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원래 '학문(學問)'이란 중용(中庸)에 나오는 '박학심문(博學審問)'의 줄인 말로서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는다'는 뜻인데, 규장각에서 정조와 초계문신이 함께한 일상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전형(paragon)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21세기는 평생학습과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의 시대인데(김도연 외, 2011: 50), 정조야말로 호학군주로서 평생학습자의 본보기였고, 규장각은 정조와 초계문신들이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학습함으로써 우리대학이 지향해야할 학습공동체와 학문공동체의 선구적인 센터였다는 점이다.

넷째, 규장각은 어제와 어필뿐만 아니라 훌륭한 서적을 모아 보관하고 수많은 서적을 편찬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계승 그리고 문화 창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공부를 위해서는 책이 가장 필수적이듯이 수많은 훌륭한 서적을 각지에서 수집하여 국가도서관을 채워서 그 기초를 튼튼하고자 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공부를 책만으로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책은 다른 사람들의 학문적 결과물들이므로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규장각은 도서를 활용할 수 있게 도서 수집을 통하여 여러 문신들의 그 갖추어진 실력을 다지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규장각은 초계문신을 교육하여 좋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길러 냄으로써 사실상 국가발전과 문화강국 구축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섯째, 규장각은 새 시대와 우리 교육현장에 절실히 필요한 최고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쌍방향인 소통(two-way communication) 관계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여 준다는 점이다. 규장각의 각신은 하루에 세 번씩이나 정조를 만날 수 있었다. 학문에 있어서는 신분을 떠나 항상 상대방의 신분을 인정하였던 정조는 규장각의 신하들과 학문적 토론을 즐기고 함께하는 경연을 실시하였다.

결국, 규장각의 실제적인 기능과 역할을 종합해볼 때, 규장각의 설치와 그 운영형태는 새 시대의 교육발전과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새 정책 수립과 그 실천방안 마련에 큰 귀감이 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호학군주인 정조가 나라의 최고경영자로서 몸소 규장각을 설립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막강한 힘을 실어주었을 뿐 아니라 도서 수집과 보관, 수많은 도서의 출판, 초계문신의 선발과 교육, 정조와 각신 및 초계문신 간의 쌍방적인 소통, 학문공동체와 학습공동체 등의 기능을 규장각이 균형 있게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정조가 설치한 규장각의 교육적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성리학을 절대시하는 조선시대에도 정조와 같은 군주는 규장각과 같은 교육기관을 두어 자신을 보좌하게 하였고, 나라 경영을 보좌하게 하였다. 이처럼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뛰어난 학자들을 등용하였으며, 정치 자문과 왕실 교육 및 서적 편찬 등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규장각에 대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교육사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참고 문헌

규장각지(奎章閣志)  
일성록(日省錄)  
정조실록(正祖實錄)  
홍재전서(弘齋全書)  
강순애(1989). 奎章閣의 圖書編纂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도연 외 20인(2011). 새로운 대학을 말한다, 서울: 매경출판(주).  
김동배(2009). 군사(君師) 정조의 인재정책에 나타난 리더십 연구 -규장각 초계문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식(2007). 정조의 제왕학, 경기: 태학사.  
김재준·변효중(2005). 좋은 수업'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수산해양교육연구 17(3), 373~382.  
남권희(1983). 奎章閣 書庫의 書目과 藏書變遷 分析: 現存書目을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범정신선양회(1992). 백범일지, 서울: 하나미디어.  
서범중(2003). 朝鮮時代 讀書堂의 教育學的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설석규(1984). 규장각과 정조의 혁명 정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광래(1986). 甲辰新編 「奎章閣志」 研究 -圖書館的 機能과 司書의 役割을 中心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세열 역주(2011). 奎章閣志,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이이화(1979). 奎章閣小考 -奎章閣志를 중심으로 본 概觀-, 규장각 제3권, 149~165쪽.  
이행숙(1982). 奎章閣藏書의 構成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홍석(2001). 중등교사가 인식하는 유능한 교사의 자질, 수산해양교육연구 13(1), 37~62.  
정옥자(2001).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서울: 효형출판.  
\_\_\_\_\_(2007). 규장각의 지식기반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문화, 조선시대 문화사 (상), 서울: 일지사 388~414쪽.  
\_\_\_\_\_(2012). 지식기반 문화대국 조선, 경기: 들베개.  
최두진(2009). 정조대의 초계문신 교육제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영우(2008). 규장각, 서울: 지식산업사.

- 
- 논문접수일 : 2013년 01월 07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1월 30일  
2차 - 2013년 02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2월 14일